

발기 유발제와 에이즈

글 김재성 본회 대전충남지회장, 비뇨기과 전문의



1942년 이후 대량생산된 페니실린으로 질병의 혁명적인 치료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사실과 버금가는 혁신은 바로 1996년에 세계적으로 발기력 감퇴로 인해 삶이 위축된 남성들에게 획기적으로 자존심을 살려준 이 '명품(발기유발제)' 이 발명된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특화 전략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발기유발제가 만들어져 시판되고 있다. 여기에는 발기 시간을 오래 지속한다거나, 강직도를 20대 때와 똑같이 딱딱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사정 후에도 발기를 지속시켜준다든지, 빠른 시간 안에 성적 흥분도를 높여 발기력을 오랜 시간 유지 시키는 등의 다양한 기능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특화 전략으로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명품들이 '일방적'인 명품으로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명품이 거의 7~8년 가까이 한국에서 사용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준 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부 여성에게는 일방적 성적 욕구 해소 차원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남성의 성적 능력, 즉 발기 횟수, 시간, 강직도 등이 여성의 심리적 육체적인 성적 상황을 무시한 채로 증가되는 한편에는 이로 인해 여성들의 질속의



상처와 감염이 심각해 지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남성도 명품사용으로 인해 성기에 염증과 상처가 생겨날 수 있고, 이로 인한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HIV의 침입이 더욱 쉽고 가속화 될 가능성이 많다.

너군다나 이런 명품들이 가정 내에서만 사용된다면 더욱 가치가 있겠지만 편법적으로 가정 외에서 사용하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의 파트너와 성접촉을 하면서 질 성교를 하거나, 혹은 강한 자극을 주는 항문 성교를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는 심해지고 2차적 감염 및 HIV 침투는 훨씬 유리해 질 것이다. 그 외 구강 성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 역시도 발기 시간이 지속되면서 입안의 상처와 염증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다양하게 특화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기 유발제를 이용하고자하는 남성은 상대방 여성에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여성이 성적 관계 시 그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로움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성의 명품 사용에 대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여성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발기유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성접촉을 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발기 유발제는 항상 전문기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단지 성관계 상대방 여성에게 성기의 크기나 강도를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만 일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상호적으로 서로간의 부족한 성생활을 환희와 기쁨의 성생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명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명품 사용이 불특정한 상대와 이루어 질 경우, 어떠한 방식의 성접촉에 있어서도 HIV 감염 상황에 쉽게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콘돔사용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으나, 명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성관계 시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